

## 북한 가족주의 체제의 모성적 토대

: 보건의료부문을 중심으로 \*

정향진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 보건의료부문의 선전선동에서 사용되는 토착심리학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가족주의 체제의 중요한 차원 하나가 모성성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건의료부문의 사상적 지침이자 대중동원체제인 정성운동은 가족 관계에서 배태되는 토착심리학적 범주들을 조직적으로 담론화하고, 그럼으로써 공산주의라는 외래 이데올로기를 토착심리의 지평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둔다. 이때 핵심이 되는 토착심리학적 범주인 육친적 사랑과 정성은 가족 관계 중에서도 모-자녀 관계에 토대한 것인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노동신문의 기사문, 그리고 보건의료부문 선전영화는 모-자녀 관계의 애착과 정신역동이 정치화되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보건의료부문의 선전선동에서 모성적 주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당이 곧 '어머니'이며,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은 '어머니당'의 보살핌을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전사들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보건의료부문의 사례는 특히 당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북한 국가체제의 가족주의적 성격이 부-자 중심의 유교적 가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시한다.

주제어: 북한 가족주의 체제, 토착심리학, 모성비유, 모-자녀 관계, 북한 보건의료, 정성운동

---

\* 세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 심사평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손성규 군이 자료수집을 도와주었고,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도 유익한 평을 해주었다. 이 논문이 토대하고 있는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2012-2013년 논문지원과제로 수행되었다.

## I. 서론

바위틈 약수터에 고개 숙이고  
간호원 순이는 물을 푸네  
[...]  
창문을 들여다보는 별들과 함께  
무수히 지새운 밤과 밤들,  
고열에 모대기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살뜰한 누이와 같이,  
인자한 어머니 같이,  
그 고운 눈에 수심을 담고  
아침해를 맞이하군 하던 순이<sup>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버지 수령(혹은 그 후계자)과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한식술, 친형제로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이는 북한의 신문, 방송, 영화, 문학, 예술 작품 등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투어구로서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화목한 대가정”은 체제의 정치적 이념이며 사회의 조직 원리이자 주민들에게 “감정의 구조”(Williams 1977)로 작용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보건의료부문을 예시로 하여 화목한 대가정이라는 이념이 주민들의 감정을 특정하게 구조화하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공화국은 화목한 대가정”이라는 것은 북한의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는 가족관계적 규범과 가치가 가족 외의 맥락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가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이항직 2002; 조혜정 1985;

---

1) 1964년 「조선문학」 5호에 실린 석광희의 시 ‘약수터, 정성의 샘물아!’의 일부이다.

최재석 1977, 1982). 이미 상당수의 학자들이 북한 체제의 가족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지적해왔고, 그 문화적 토대로 지목되어 온 것은 단연코 유교적 전통이었다. 일찍이 이문웅(1989, 1996; Lee 1976)은 북한에서 유교적 가족가치가 국가에 의해 채택, 변용되어 ‘가족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되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주희가 꿈꾸었던 유교의 이상 사회”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이문웅 1996: 158~159). 브루스 커밍스(Cumings 1982~83; 커밍스 2003) 역시 북한은 가족이 그 핵심이 되는 조합주의(corporatism) 체제로서, “스탈린의 소련보다는 성리학 적 왕국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커밍스 2003: 589). 근래에는 권현익과 정병호(Kwon 2010; Kwon and Chung 2012)가 지도자 세습의 문제와 얽혀 유교적 가족가치의 정치적 변용이 더욱 심화되어 온 것에 주목하였다(암스트롱 2005; 와다 2002).

북한 당국의 정치적 수사에서 가족비유는 현란할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가족비유가 담지하고 있는 유교적 전통의 실질적 중요성 및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족비유는 유교의 가족 이념과 긴밀하게 상호관련되어 있으나 유교적 이념의 차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토착심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남한의 경우에 대해 정향진 2014 참조), 이 점에서 북한 가족주의에 대한 강진웅(2001, 2010)의 논의가 흥미롭다. 강진웅(2001)은 북한의 가족적 수사는 “가족국가가 전통적인 충효사상의 유교문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명한 결과”(p. 340)라고 보면서도 그 호명의 범위는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p. 343). 나아가 그는 유교문화 자체보다는 그 저변에 흐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오래된 심리문화적인 전통이 정치적인 담론으로 상승,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에서 개진하였다(p. 343). 강진웅은 유교문

화의 호명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 및 저변의 “심리문화적인 전통”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후자에 대한 탐색도 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웅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었다.

필자는 다른 글(Jung 2013b)에서 한국<sup>2)</sup> 가족의 토착심리적 특징 및 개인의 정신역동이 북한의 지도자 숭배에서 어떻게 전용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필자는 그 글에서 지도자가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 즉 ‘어버이’로서 강렬한 애착경험의 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로 토착심리적 측면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였다. 하나는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할 때,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의 경우 부자관계에서 강한 위계성과 감정적 애착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고<sup>3)</sup>(이광규 1975: 275~290), 또 하나는 부모-자녀 간의 애정과 호혜성이 “정(情)”이라는 토착심리학적 범주의 기본 모델이 될 정도로 한국인들의 토착심리적 지형에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핵심적이라는 점이었다(김주희 1992). 그러나 그 글에서 필자는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도자가 양성적인 존재 ‘어버이’로 선전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체제의 수반으로서(그리고 현실적으로 남성 지도자로서) 부성의 차원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연원한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필자의 글을 포함하여 지도자를 중심에 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북한 체제의 부성적 측면이 전면에서 제시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가

2) 이 글에서 ‘한국’은 국가의 단위가 아니라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적 경향성을 가리키는 형용사의 용법(Korean)으로 사용된 것이며, 국가 단위에 대해서는 북한(혹은 남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3) 부자간의 강한 위계성과 정서성의 결합은 조선 사회에서 유교 이념이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 민간 전통과 만난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고유하게 발달된 종족조직, 상속관행, 가장권 계승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자넬리·임돈희 2000).

족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것으로 지도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머니 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체제의 모성적 차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토착심리학(ethnopsychology)<sup>4)</sup>은 심리적 현상과 과정에 대해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이론체계를 가리키는 바, 특히 감정 범주들(한국의 예를 들면, 정, 한, 심정, 마음, 진심 등)은 자아와 세계의 관련에 대한 해당 사회 집단의 고유한 인식과 실천을 드러낸다(정향진 2013: 181). 뿐만 아니라 토착심리학은 문화적 담론으로서 개인의 심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을 지닌다(Lutz 1998: 4; 정향진 2014: 183). 즉, 토착심리학은 사회화와 여타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개인 심리를 일정하게 방향지음으로써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특징적으로 공유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낳으며, 이로써 토착심리학과 토착심리의 관련을 말할 수 있게 된다. 토착심리학은 단순히 토착적인 이론체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혹은 상당하게) 개인의 심리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개인의 심리는 토착심리적 층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토착심리학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온 감정 범주 중의 하나가 “정(情)”인 바(김주희 1992; 최상진 2000), 정은 사람됨의 궁극적인 표식으로까지 여겨진다(앨퍼드 2000: 123). 북한의 경우 정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사람됨의 표식일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의 한민족적 진정성, 나아가 “화목한 대가정”으로서의 체제의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이 된다(Jung 2013a). 요컨대, 남북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정은 대인관계적 긍정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4) 토착심리학(ethnopsychology)은 심리인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용어의 변역에 대하여 필자의 다른 글(정향진 2014)에서는 ‘민속심리학’으로 하였고, ‘민족심리학’도 가능하다. 토착심리학보다 확장된 의미 영역을 가진 용어로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이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6집 3호(2013), pp. 165-209 참조.

대범주(master schema)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정은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맞물려 그 의미 영역 및 관련되는 하위 범주들이 일정 정도 분기되어 왔다고 추정된다.<sup>5)</sup> 하위 범주들 중에서는 특히 정의 ‘능동적인 측면’(김주희 1992: 298)을 나타내는 ‘사랑’의 용법에서 그 분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후반 남한의 농촌 사회에서 사랑은 일상적으로 구두화되지 않는 감정 범주였다면(김주희 1992: 298), 2010년대 초반 현재 사랑은 개인 간에 보다 빈번하게 구두화되는 동시에 상업화의 맥락(예: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더불어, 남한 기독교에서 초월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사랑의 궁극은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사랑이므로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바, 바로 이 점이 본문에서 예시될 것이다.

토착심리학적 범주로서 정은 “가족관계에서 배태되고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관계성과 감정의 기본 모델”(정향진 2013: 183)이다. 이 글에서는 정 및 그와 관련되는 토착심리학적 범주들, 대표적으로 ‘사랑’과 ‘정성’이 육친적 관계성의 본질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북한 가족주의 체제의 확립과 유지에 동원되는 것에 주목한다. 가족 관계 중에서도 특히 모-자녀 관계에서 길러지고 파생되는 애착과 정신역동이 토착심리학적 담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양상이 연구의 초점이다. 그럼으로써 최소한 보건의료부문의 선전선동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모성적 은유가 핵심적이며, 이는 부자관계 및 충효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이념의 영향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분석의 과정에서 첫째, 체제와 개인 심리의 교섭이 토착심리학에 의해

5) 1970년대 후반 한국 농촌 사회에서 나타난 정의 의미 영역 및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김주희,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서울: 집문당, 1992), pp. 293~300 참조.

매개된다는 점을 볼 수 있고, 둘째, 북한의 경우에 사회문화적, 정치적 현저성을 가지는 토착심리학적 범주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동원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는 수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먼저 북한에서 발간된 것으로 보건의료체계 확립의 단계별 과정과 보건의료의 특징을 개괄한 문건(승창호 1989)이 있다. 남한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법(이철수·이일학 2006)을 비롯해서 의료체계의 확립 과정(황상익 2006), 의료인력의 양성(박재형 외 2003), 보건의료정책(연하청 2000) 및 보건의료제도의 운영(문옥륜 2001) 등이 주요 영역을 형성해온바, 이들 연구는 북한 보건의료부문의 대략적인 윤곽을 밝혀주었다.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북한 보건의료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먼저 최영인 등(2006)이 북한 보건의료부문의 이른바 정성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정성운동에서 지향하는 의료인상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과 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또한 박상민 외 2011; 황상익 2006). 최근에는 이해경(2013)이 보건의료부문의 정치화 및 정성운동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내보였다. 이 연구에서 이해경은 무상치료가 무상교육과 더불어서 사회주의의 양대 기둥으로서 선전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정성”의 이름으로 체제의 수호자로서 정치도구화되었다고 보았다.

보건의료부문은 북한 당국에 있어 국가수립 초기부터 식량난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중추로서, 사상성과 혁명성의 최전선으로 다루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지점은 보건의료인들에게 “공산주의적 품성”을 고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정성운동이 전형의 창출 및 대중동원이라는 사회주의 사회 특유의 주민 교화 방식과 맞물리면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체제의 성격까지도 강하게 규정해왔다는 점이다.<sup>6)</sup> 의료서비스는 인생주기 전체에 걸쳐 펼

요하며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제의 구축과 선전에서 보건의료부문이 우선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은 당연하기까지 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조지 외 1989; 황홍국 외 2011 참조). 북한의 경우에 특수한 것은 보건의료부문의 정치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이혜경 2013: 36)과 더불어 그러한 정치화에서 토착 심리적 토대의 동원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 및 공산주의적 사상성을 증명하는 통로와 양상으로서 육친적 사랑, 특히 친어머니의 사랑이 호명되는 것에 주목한다. 보건의료부문이 체제의 유지와 선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부문에서 모성적 은유가 두드러지는 점은 체제의 기반이 되는 대중적 토대에 대해 흥미로운 함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II. 분석 자료

이 글에서 분석된 자료는 문헌자료와 영상자료로 나누어진다(자료 목록 참조). 문헌자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직접 나온 문건들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건들은 주로 담화, 서한, 또는 연설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로 대체로 보건의료 일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연설도 포함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건들을 통해 보건의료부문의 정치적 중요성, 정책

6) 소련의 대중동원에 대해서는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4~36,” 『서양사론』, 제100권(2009), pp. 217~253 참조.



의 계기, 중대 사안 등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로동신문 기사는 보건의료부문의 모범사례, 즉 정성운동의 사례를 보도한 것들이다. 로동신문의 사회면은 주로 모범사례 보도로 구성되는데, 이는 북한의 언론이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과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백과전서6권 1978: 292, 김원태 2010: 248에서 재인용). 사회면에서 간단한 보고 형식의 조각 기사 외에 정규 기사는 전형적으로 서두에서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저작 중 일부를 인용한 후 그 인용에 해당하는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정성’과 ‘정성운동’을 주제로 하여 로동신문을 검색하였고, 그렇게 검색된 기사들 중에서도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인용으로 시작되는 정규 모범사례기사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7)</sup> 그러한 모범사례기사는 1973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2012년 8월까지 39년의 기간 동안 243일에 288건이 수집되었다.<sup>8)</sup> 이는 연평균 6일 이상에 해당하는데, 로동신문이 이 기간에 최소한 두 달에 한번은 정성운동의 모범사례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7) ‘정성’으로 검색되는 보건의료부문의 기사에 김일성 혹은 김정일이 특정한 의료시설을 현지지도하였다는 보도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 기사는 김일성 혹은 김정일 저작의 인용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물론 ‘정성’으로 검색되는 기사 중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기사가 아닌 것들도 매우 많다.

8) 로동신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색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4년 4월 현재 1971년에서 2012년까지 구축되어 있으며,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1973년 8월이 ‘정성’이라는 검색어로 보건의료기사가 처음 나타난 시점이고, 2012년 8월이 마지막 시점이다. 243일에 288건의 기사라는 수치에서 기사의 일수보다 기사의 건수가 많은 것은 해당 일에 한 건 이상의 모범사례가 실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육친’이라는 검색어로 수집된 2건의 정성운동 사례 기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정성운동의 사례 기사들 중에서 김일성 혹은 김정일 저작의 인용이 포함되지 않은 조각 기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각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기사의 일수 및 건수는 더 늘어난다.

된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기사문에서 보도되는 사례의 진위여부보다는 사례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토착심리학적 범주와 담론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영상자료로는 보건의료일군을 다룬 영화 『사랑의 대지』가 사용되었다.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처녀의 마음』과 함께 『사랑의 대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인 의료인의 전형으로서 로동신문 기사에서 언급되었고, 2014년 현재 『사랑의 대지』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였다. 여기서 지적해둘 한 가지는 이들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여성 의료인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인데, 이는 보건의료에서 모성적 은유가 지니는 무게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사랑의 대지』는 식량난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9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보건의료부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로동신문 기사, 그리고 영화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은 북한의 선전선동이 작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은 토착심리학적 함의가 매우 풍부하며, 로동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러한 “말씀”에서 발췌, 인용하여 환기시킨 후 인민대중들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토착심리적 지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서술한다. 그리고 영화는 말씀과 실천 사례를 인민대중의 생활 속 서사로 만들어 “화목한 대가정”을 영상으로 재현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내면심리적 역동을 정치화한다. 아래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로동신문 기사, 그리고 영화 『사랑의 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며, 이때 세 차원의 선전선동에서 모성적 은유의 중심적 위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sup>9)</sup> 정성운동의 사례보도가 아닌 일반적인 보건의료 기사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부문은 전반적으로는 이보다 더 빈번하게 기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김일성 교시: 보건일군은 인민의 육친

보건의료부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을 비교하면, 전자가 보건 의료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성격을 규정하였다면 후자는 김일성이 말한 것을 계승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일의 문건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일성의 문건 내용을 이른바 선군시대의 사회적 상황 및 정치적 요구에 맞추어 재조직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일군의 사상적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김일성의 어구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문건들은 김일성 교시의 확대본이자 주석서라 할 만하다. 로동신문의 보건의료 기사에서 가장 자주 발췌, 인용되었던 두 개의 문건,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김일성 1961)와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김정일 1985)를 비교하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sup>10)</sup> 흥미로운 점은 김일성의 문건에서 토착심리학의 호소력에 기대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인데, 이는 로동신문 기사와 영화에서 증폭되어 재생산되었다.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김일성 1961)는 제목이 말하는 대로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공산주의적 품성을 규정한 문건인바, 이 문건은 김일성이 외래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토착심리학을 호명하는 것을 예시한다. 문건의 초반부에서 김일성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누구나 다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보건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들어서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p. 246).

<sup>10)</sup>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보도기사 총 288건 중 김일성을 인용한 기사는 69건이며 그 중 43건이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다. 김정일을 인용한 기사는 모두 219건이며 그 중 102건의 기사에서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인용하였다.

그 아름다운 소행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자기 살을 떼어주거나 뼈를 깎아주는 것과 같은 일들”(p. 247)이다. 요컨대,

보건일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정성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의사가 환자를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치료사업에 끝없는 정성을 쏟아부을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김일성 1961: 249~250).

위의 인용뿐만 아니라 이 문건 전체의 감정적인 톤을 지배하는 어구들이 “지극한 사랑”, “끝없는 정성”, “진심”, “헌신적 노력”, “육친적인 배려” 등이다. 비교적 짧은 이 문건에서 “정성”은 10회, “육친”은 3회에 걸쳐 언급되었고, 의료인들이 자기 살을 떼어주거나 자기 뼈를 깎아서 환자에게 주었다는 것이 세 차례 지적되었다. 이로써 김일성은 한편으로는 가족성원, 즉 육친 사이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비육친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난다는 점을 선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육친적 사랑과 정성을 공산주의적 품성으로서 보건의료인에게 요구하였다.

이 문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살을 떼어주었다는 것은 1960년 11월 흥남비료공장병원의 의료진과 당시 그 병원에 실습을 나와 있던 함흥의대 학생들이 화상환자 방하수 소년에게 피부를 이식한 일을 가리킨다.<sup>11)</sup> 이 일화는 그 이듬해인 1961년 2월 기사화되어 김일성에 의해 공산주의적

11) 의사가 자기 뼈를 깎아내어 환자에게 주었다는 것도 실제 일화에 바탕을 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로동신문의 보도기사에서도 의료인이 자기 뼈를 환자에게 기증한 사례는 피부이식이나 수혈에 비해 드물게 나타난다. 드문 예로, 로동신문 2004년 10월 4일자 기사 “인간사랑이 넘쳐나는 의료집단”에는 척추에 타박을 입은 환자에게 의료인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뼈를 기증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뼈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품성을 가진 보건의료의 모범으로 발탁되었고, 이어서 6월 7일에 있었던 ‘전국보건부문 일군열성자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의 중대 계기로 작용하였다.<sup>12)</sup>(최영인 외 2006; 황상의 2006: 100~105; 『로동신문』 2011년 6월 7일). 김일성은 이 일화에서 피부의 증여를 특별히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을 떼어주는” 행위로 명명함으로써, “육친”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직접적으로 환기시켰다고 하겠다. 이 연설을 계기로 자기 살을 떼어주는 행위는 육친적 사랑의 제유(提喻)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고, 『로동신문』의 기사들로 추정하건대 무수한 모방 사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의료적 급부와 반대급부(국가로부터의 보상)로 성립하는 관계를 ‘육(肉)’의 차원이 매개하는 관계로 치환시킴으로써, 국가 관료체제의 일부로 작동하는 보건의료를 가족관계가 그 중심이 되는 토착심리의 지평 속으로 끌어들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일찍이 발표한 문건 중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것으로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가 있다. 1974년 4월 9일자 이 문건에서 그는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12) 홍남비료공장병원의 화상환자 일화는 우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사상 투쟁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황상의 2006: 100). 김일성은 1959년 4월 24일자 담화문 “보건일군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다”에서 “부르조아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를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이 문건에서 일부 의사들이 “인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아주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건일군들은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면 성심성의로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것을 촉구하였다(김일성 1959: 393~396). 승창호(1989: 29)에 따르면 1959년에 개인 의사가 모두 국가보건기관에 소속되기에 이르렀고, 1960년에는 리 단위에 진료소가 개설됨으로써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사회주의적 제도의 체계가 세워졌다. 이러한 바탕 위에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사상적 요구가 이때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하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였고, 이어서 1985년 4월 21일자로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내놓았다. 『로동신문』의 발췌 빈도로 볼 때 김일성의 문건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1985년의 이 문건인바, 김정일은 여기서 보건의료부문의 제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김정일이 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으로 되어 있는 이 문건에서 김정일은 아래와 같이 서두를 이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뼈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 보건부문 일군들 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김정일 1985: 174).

다음은 같은 문건의 3절(“의료봉사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 품모입니다. 의료일군들 속에서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치료예방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1985: 187).

김정일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뼈와 살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정성을 보건의료인의 정신도덕적 품모로 내세웠다. 차이라면, 김일성의 문건이 “육친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소행”을 보건의료의 공산주의적 전형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 반면, 김정일의 문건은 보건의료의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3)</sup> 이런 이유로 김일성의 문건이 상대적으로 짧고(9쪽 분량) 구어체적인 데 비해 김정일의 문건은 훨씬 더 길고(27쪽 분량) 전체적으

로 문어체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위 인용에서 보는 대로 김일성 문건의 골자를 그대로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김일성의 교시를 받든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로써 김정일 시대와 김일성 시대가 이어지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김일성 문건의 골자, 즉 육친적 사랑과 정성은 인민보건법(김일성 1980; 승창호 1989)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보건의료의 사상적 원칙<sup>14)</sup>으로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중선전의 변함없는 주제가 되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김일성이 애초에 육친적 사랑을 호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육친적 사랑이 선전선동의 고정된 주제가 되어온 것 자체가 토착심리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과 호혜성이 “가장 강하고 깊은 종류의 정”(김주희 1992: 109)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sup>15)</sup> 육친이라는 제유는 국가장치의 정치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토착심리적 경향성이 조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육친에는 형제와 자매도 포함되지만 김일성이 호명한 육친적 사랑은 일차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신문의 기사문에서도 드러나지만 영화 『사랑의 대지』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 절에서는

13) 김정일의 이 문건은 위생방역사업, 질병예방사업, 공해감시, 위생선전, 의사담당구역제, 의료봉사의 전문화,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농촌의료, 의학과학 기술 발전, 보건일군의 양성, 보건부문의 물질적 보장 등 보건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4) 인민보건법(김일성 1980)은 무상치료, 예방의학, 주체의학의 원칙 외에 보건일군의 태도와 의식에 대해서도 한 개의 독립된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육친적 사랑 및 정성운동이 명시되어 있다. 무상치료, 예방의학, 주체의학이 보건의료의 제도적, 의학적 원칙에 대한 것이라면 정성운동은 사상적 원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5) 김주희는 1970년대 후반 농촌 사회의 맥락에서 부모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였는데, 부모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계적 가족제도하에서 사회적으로 부각되지는 않되 강한 감정적 끈으로 묶여” 있다고 보았다(1992: 127).

먼저 『로동신문』의 선전선동에서 이러한 토착심리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 IV. 로동신문: 육친적 사랑의 아름다운 소행들

『로동신문』에서 ‘정성’ 혹은 ‘정성운동’이 제목에 나타나는 보건의료부문의 기사문<sup>16)</sup>은 1973년부터 다소 불규칙적이지만 꾸준히 나타난다. 기사가 한 건도 없었던 해가 있는 반면 김정일 통치 말기에는 기사가 크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17일에 걸쳐 정성운동의 모범사례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정성운동의 기사문들은 대체로 1/4면 길이로 나왔지만 보건의료부문에서 기념일에 해당하거나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을 기해서는 한 면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는 장문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장문 기사를 예로 들면, 2008년 11월 19일자 ‘사랑과 정성의 새전설 강산을 올린다’가 있는데, 부제는 ‘전신 67%의 3도 화상을 입은 부전강발 전소의 한 로동자의 소생에 깃든 이야기’로 되어 있다. 기사의 첫머리에 서는 김정일의 저작 중 일부를 인용하고 주인공 환자를 소개한 후, 이 사례가 다름 아닌 “천리마시대에 정성의 봉화로 소문났던 병원”인 함경남도인민병원<sup>17)</sup>에서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다. 정성의 봉화란 “전신 48%의 3도 화상을 입고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던 한 어린이를 구원”했던 일,

16) 현재까지 구축된 통일부의 『로동신문』 데이터베이스는 1971년에서 시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1971년 이전의 『로동신문』에서 보건의료부문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어떤 내용으로 기사화되었는지는 검토되지 않았다.

17) 기사문에서 함경남도인민병원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인민의 대학병원”이라고 하고 있고 함흥의학대학과 병치시키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 병원은 함흥의학대학의 부설병원인 것으로 보인다.



즉 1960년 11월의 방하수 소년 일화를 가리키는 바, 2008년 11월의 이 기사는 정성운동의 시작을 기념하는 특집기사인 것으로 보인다. 48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던” 화상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였으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국과 인민의 뜨거운 사랑과 애무” 덕분이었다. 이 특집기사는 통상적인 정성운동 기사문들이 보여주는 선전선동 기법들을 전형적이면서도 더욱 풍부하게 보여준다.

이 사례의 환자는 발전소에서 고압전기 설비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었고, 입원 후 48시간이 지나도 “생명의 마지막 극한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기어이 소생”시키기 위하여 “피가 요구되면 서슴없이 자기 피를 뽑아 환자의 몸에 넣어주었고 욕창을 막기 위하여 온밤 환자를 맞들고 서있기도 하였다.” 마침내 환자는 입원 여드레만에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이때부터 “수천cm<sup>2</sup>에 달하는” 피부이식수술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병원의 의료진은 자신들의 피부만으로 이식수술을 완수하려고 하였지만 이들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환자가 속한 발전소의 간부와 노동자들, 일반 시민들까지 피부이식이 벌어지는 수술실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혈육도 아니고 동창생도, 친척도 아니지만 제 살을 먼저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듯 앞을 다투며 나서는 모습들을 보며, 피부이식에 참가한 기쁨에 환히 웃으며 수술실을 나서는 사람들을 보며 간호장 김화옥동무는 줄지어내리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환자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지만 저저마다 피와 살을 내대는 저 아름다운 인간들을 모두 환자의 친부모, 친형제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600여명의 그 불같은 헌신과 진정”에서 나온 “한점한점의 피부들”은 환자를 “포근히 감싸” 갱생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다.

기사는 다시 천리마시대의 그날을 회고하며 “그 은정, 그 업적”을 기려 함흥의학대학과 함경남도인민병원이 있는 거리와 지역을 ‘정성거리’, ‘정성동’이라 부른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

위 기사문은 화상 중환자에 대한 각고의 의료투쟁,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피부기증, 감동적인 공동체의식 등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정성운동의 시발이 되었던 임상사례 및 의료적 처치를 48년의 시간차를 두고 그대로 복제하는데, 이는 이 특집기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로동신문』의 정성운동 기사들은 모두 1960년 11월의 방하수 소년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그 전형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당복한 체제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김정일 1976: 304)이며, 『로동신문』의 정성운동 기사들은 이 원칙에 따라 고도로 양식화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288건의 정성운동 기사문들은 전혀 다양하지 않다. 달라지는 것은 해당 사례가 일어난 지역, 기관, 인물 등일 뿐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라는 주제는 변함없이 반복된다. 사랑과 정성은 의료인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어떤 것인바, 실제로 변함없이 반복되는 것은 사랑과 정성이 구현되는 방식이다.

사랑과 정성의 관습적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화상 환자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는 물론 김일성이 정성운동을 발화하면서 치하했던 그대로의 아름다운 소행이다. 김정일 통치의 마지막 해인 2011년을 예로 들면, 연간 12월에 20건의 정성운동 기사가 나왔으며 그 중 4건에서 화상환자의 사례가 다루어졌거나 언급되었다. 최영인 등(2006: 45)도 『로동신문』에서 피부기증과 헌혈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화상환자 발생의 빈번함 및 수혈체계의 미흡함을 반증하는 한편 이른바 정성치료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사로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위의 2008년도 11월 19일자 기사문의 경우 “현대의학에는 피부이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화상치료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

지만 병원의 의료집단은 다름 아닌 자기들의 몸에서 제 손으로 떼여낸 피부를 환자에게 주고 싶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정성을 깡그리 바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증 화상 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임상사례는 신체절단, 전신타박, 실명위기, 난산 등이다. 혈액과 피부의 기증 외에도 안구결막의 기증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며, 심지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뼈를 기증하였다는 보도도 몇몇 있다. 육친적 사랑의 징표로서 육(肉)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헌혈과 피부기증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사건이 된다. 위 기사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 혹은 피부를 기증하기 위해 제각기 구실을 갖다 대며 “울먹이며 간청”하고, 그러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한 대가정”으로서의 “사회주의 내나라”의 진면목을 확 인식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사랑의 육화(肉化)는 육친적 사랑의 보다 일상적인 실천과 연관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육친적 사랑이 토대하고 있는 토착심리적 지평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위 기사에도 의료인들이 육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를 밤새 맞들고 있었다는 대목이 있지만, “환자 곁에서 긴긴밤을 지새며 고열에 신음하는 환자에게 얼음찜질을 해주고”(2008.3.28), 회복기에는 “날마다 토끼곰이며 닭곰을 해다가 머리맡에 놓아”주기도 하고(2010.11.29), 환자의 생일에는 “뜻밖의 생일상”을 차려주는 일(2003.12.8) 등은 “전국각지에서 들꽃처럼 무수히 피어나는 미담의 소식들”(2008.3.28)이다. 환자의 곁에서 밤을 지새는 일, 보양식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생일상을 차려주는 일은 피부와 혈액의 기증보다는 덜 극적인 그러나 더 일상적인 사랑의 징표로서 이 역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생일상을 받은 환자는 “생일상앞에서 울고 또 울고!”(2009. 5. 12), 극진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는 간호원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니를 떠올린다.

처음에는 간호원이 꼭 다정한 동생같이 여겨지더니 다시 보니 어머니처럼 생각되는군요. 어릴 적에 내가 잠시 앓기라도 하면 한밤을 지새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백가지, 천가지 고생도 다 달게 여기며 자기를 바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8. 3. 28)

의사가 개별 가구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담당구역제의 모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 한 예로, 2008년 12월 15일자 기사는 하반신 마비의 영예군인(퇴역군인)을 담당한 “열정적이고 다심한” 한 여의사를 소개한다. 이 기사는 “《호담당의사》라는 부름이 《우리 선생님》으로, 《우리 누이》로 바뀌어진 추억깊은 나날”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많은 시간을 앞서서 있는 영예군인이 사소한 불편을 느낄세라 꽃방석과 털조끼도 만들어주고 삼륜차를 밀고 체육경기장에도 같이 갔던 일, 생일날 이면 교통보안원인 남편 최철진동무와 함께 영예군인가정을 찾아가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주고 [...]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을 때에는 제 일처럼 기뻐하며 부모보다 먼저 애기를 품에 안아주던 일... (2008. 12. 15)

그리하여 수십 년 세월을 언제나 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친언니, 친어머니 같은” 한 여의사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당의 품은 저에게 친어머니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심장 속에 새겨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2010. 11. 12)

요컨대, 육친적 사랑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피와 살까지 나눌 뿐 아니라 밤을 지새우면서 돌보고, 몸에 좋다는 갖가지 보양식을

해서 먹이고, 집집마다 혹은 지하의 막장까지 찾아가서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생일상까지 차려주는 행위로 표현된다. 정성운동의 기사문들이 예시하는 이러한 육친적 사랑은 모성적 함의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수반이 아버지가 아니라 양성적인 ‘아버이’로, 당이 ‘어머니’로 비유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김일성(1961)이 말했듯이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 즉 어머니 당의 대리인이라면,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보건의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위의 기사에서는 여의사의 입을 빌려 이를 직접 말하고 있다. 당의 사랑은 곧 친어머니의 사랑이며, 의료인은 자신이 당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환자들에게 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다.

육친적 사랑의 모성적 측면은 정성운동 기사문에서 가족비유가 사용되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다. 기사문에서 “친아들”, “친아버지”, “오빠” 등의 남성 가족호칭보다 “친딸”, “친어머니”, “누이” 등 여성 가족호칭이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더불어서 정성운동 보도는 모범적 의료인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남성 의료인보다 여성 의료인이 더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sup>18)</sup> 이러한 기사에서 남성 의료인의 경우 의료 기술개발이나 임상적 성과 등이 강조되는 데 반해 여성 의료인의 경우 친혈육(친어머니, 친언니, 친딸)의 정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북한에는 준의, 간호원, 조제사 등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에서 여성의 비율이 7할 이상이며, 의학대학들의 여학생 비율도 1980년대 이후 50%를 상회해왔다고 알려져 있다(이혜경 2013: 66~67). 이는 여성노동력 이용에 대한

18) 특정 의료인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는 정규기사(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저작을 인용하는 기사)는 모두 24건이 수집되었다. 그중에서 여성 의료인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 17건, 남성 의료인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 7건이다. 여성 의료인 17건 중에서는 의사 10명, 간호원 및 준의 6명, 조제사 1명에 대한 것이며, 남성 의료인 7건은 모두 의사에 대한 것이다.

산업 전반의 정책과 더불어 보건의료에서 특히 여성의료인력의 양성이 장려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혜경 2013: 65). 김일성은 1980년 4월 4일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을 두고 연설하면서 보건일군의 양성에서 “녀성의료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김일성 1980: 202), 이를 이어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건일군을 키워내는 데서 녀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사업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녀성들이 많이 맡아 하는 것이 좋습니다(김정일 1985: 193).

여기서 “일련의 특성”이란 예방의학적 방침과 의사담당구역제라는 정책적, 제도적 토대 위에서 주민들과 최전선에서 접촉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필 것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위의 언급에서 보건의료를 보살핌의 영역, 따라서 여성노동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젠더관이 드러나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동원된 한 결과가 육친적 사랑의 모성적 성격이라고 하겠다.

김일성의 교시 및 김정일의 지적과 『로동신문』의 선전선동 기사문을 비교하면 토착심리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심화 혹은 확산이 발견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육친의 정”과 “지극한 정성”을 의료인에게 요구하였다면, 『로동신문』은 의료급부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실상 정성운동 기사문의 사례들은 보건의료부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심리적 세계의 역동을 반영하는 데에서 더욱 큰 현실성을 확보한다고 할 것이다. 그 기사문들은 가장 근원적인 애착의 감정, 즉 친어머니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며, 따라서 설령 믿을 만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읽을 만한 기사는 되는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1985년부터 김정일 저작을 인

용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김일성 저작을 인용하는 기사와 양립하다가 김일성 사후 1996년부터는 김정일 저작의 인용으로 대체되었다. 이때부터 보건의료부문에 김일성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몇몇 기사 외에는 모두 김정일의 저작에서 인용하고 있다. 1973년부터 2012년까지 39년에서 김일성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21년, 김정일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18년이다.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의 저작을 인용한 정성운동 기사문이 69개(67일), 김정일의 저작을 인용한 기사문이 219개(176일)로 후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이는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이 선전선동에 더 크게 의존해야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다음 절에서 살펴볼 영화 역시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도 이를 함의한다고 하겠다.

## V. 영화 『사랑의 대지』: 당의 품, 친어머니의 품

『로동신문』이 정성운동의 전형적이면서도 극적인 사례를 보도의 형식으로 전달한다면, 영화는 그러한 사례를 더욱 폭넓은 사회적인 장 속에서 입체적으로 펼쳐 보인다. 신문의 서사에 비해서 영화매체의 서사는 두 가지 연결된 측면에서 선전선동의 효과를 더 크게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의 대지』의 경우, 첫째, 육친적 사랑이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면서 이른바 화목한 대가정이 만들어져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둘째, 인물들이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가는 상호 관계의 역동 속에서 개별 인물의 내면심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드러낸다. 영화는 『로동신문』이 상투적으로 보도하는 장면들, 예를 들면, 응급상황에서 헌혈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 의사가 로동현장에 직접

가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보양차를 끓여주는 장면 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사가 환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극한 정성을 쏟고 그러한 의사와 환자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며 지원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육친적 사랑의 항상성과 향구성을 암시한다. 나아가서, 가망이 없던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고 환자가 육친적 사랑의 진정한 근원은 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개인 심리에 더 밀착하는 선전선동의 효과를 노린다.

『사랑의 대지』는 재일조선인 출신의 귀국동포 한정옥(22세)과 여의사 김귀녀(27세)를 주인공으로 한다. 주인공들의 영화 속 나이와 정황을 고려할 때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중후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옥은 귀국하기 전 일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으나 치마저고리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본인 청년들에게 폭력을 당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며, 곧 어머니마저 잃고 홀로 귀국한 처녀이다.<sup>19)</sup> 의학연구사 지망생인 귀녀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옥과 같은 병실에 있게 된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정옥이지만 귀녀는 기회가 날 때마다 말상대가 되어주려고 하고, 가위에 눌러 헛소리를 하는 정옥을 깨워 강에서 목욕을 시켜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정성에 정옥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귀녀는 퇴원한 후에도 정옥을 계속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연구사의 꿈을 접고 그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를 자원한다. 또한 귀녀는 군장교인 약혼자 응철을 홀로 임용지로

19) 정옥은 ‘얇은뱅이’인데, “얇은뱅이도 일으켜 세운다”는 언급이 노동신문의 정성운동 기사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흥미롭게도 이는 기독교적 암시가 강한 대목이다. 북한 체제의 기독교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병로,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를 볼 것.



떠나게 하고 정옥의 치료에 매달린다. 귀녀는 의사이자 ‘언니’로서 딸 그대로 밤낮없이 정옥을 보살핀다. 집에서 하는 주된 치료는 신경이 죽어 있는 정옥의 하반신에 뜬을 들이는 일이다. 그렇게 정성들여 몸을 치료 하는 한편으로 정옥이 재일조선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까지 보살피고, 그 과정에서 귀녀 역시 전쟁고아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옥도 알게 된다. 어느덧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정옥이 마침내 뜬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면서 치료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귀녀가 자신의 결혼까지 포기하며 정성을 바친 결과는 과연 기적으로 나타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는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정옥이 귀녀를 등에 업고 꽃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다.

영화의 비교적 단순한 플롯을 보충하는 것이 정옥과 귀녀 사이에 펼쳐지는 상호간의 심리적 도전과 응전이다. 귀녀가 한결같은 정성과 지극한 사랑으로 정옥에게 심리적으로 도전한다면 정옥은 그 사랑의 깊이와 폭을 시험하는 것으로 응전한다. 결정적으로, 귀녀의 양모가 정옥에게만 매달려 결혼시기를 놓치는 귀녀가 안타까운 나머지 정옥을 설득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정옥은 그것을 계기로 귀녀를 떠날 결심을 한다. 정옥의 이러한 움직임에 귀녀는 심리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정옥의 생일에 두 사람은 극적으로 재결합하는 바, 이로써 정옥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날은 정옥의 진정한 생일이 된다. 귀녀의 양모, 병원의 부원장, 당비서, 친구들, 이웃들 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옥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뜻으로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귀녀는 전쟁고아였던 자신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어서 당비서는 정옥에 대한 귀녀의 보살핌은 자신을 세워준 것이 아버지 수령님과 당의 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옥에게도 친어머니 당의 품을 가슴깊이 새겨주려는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또한 당비서의 발언에서 사람들은 귀녀의 약혼자 응철이 이

미 전사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자신에 대한 귀녀의 열정과 진심을 깨닫게 된 정옥은 귀녀를 향해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며, ‘엄마’라고 부른다. 다시 ‘엄마야’라고 손을 뻗치면서 귀녀에게 다가가려다가 휠체어에서 구부러져 떨어진다. 귀녀는 놀라고 감동한 한편 연민에 고통스러운 얼굴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린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병원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옥이 목발로 걷는 연습을 한다. 한발 한발 내딛어서 가고자 하는 곳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있는 쪽인데, 김부자는 미소 띤 얼굴로 함께 거닐고 있다. 정옥은 목발을 놓고,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김부자를 향해 걷는다.

영화 『사랑의 대지』는 두 여성 주인공을 통해 육친적 사랑의 모성적 측면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우선 두 인물이 모두 고아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 귀국동포 정옥의 경우 어린 자신을 돌보다가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절실하다.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정옥에게 귀녀는 모성적 사랑을 베푸는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정신역동적으로는 귀녀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귀녀는 정옥을 돌보기 위해 약혼자인 응철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응철은 결국 죽지만 응철의 죽음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귀녀는 죽은 응철보다도 자신을 떠나려 하는 정옥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보인다. 정옥이 귀녀를 필요로 하는 것 못지않게 귀녀 역시 정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에서 낸시 초도로우(Chodorow 1999: 200-202)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자녀와의 관계 및 여성 친구와의 관계에 투사되어 ‘모성애’로 재경험된다고 주장하였던 바, 귀녀와 정옥의 관계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 남성으로 비중이 큰 인물들은 당비서와 병원의 부원장 의사로, 귀녀 개인에게 비중이 큰 남성인 응철은 영화의 설정에서 귀녀의 희생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 정도에 불과하다. 정옥에 대한 감정의 깊이

와 폭에 비해서 응철에 대한 감정은 애뜻하기는 하나 그 깊이와 폭이 상대적으로 얇고 좁은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이는 귀녀에게 있어 이성에 대한 사랑보다 당에 대한 충성이 더 크다는 것인데, 당에 대한 충성은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정신역동의 차원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자 갈구이기 때문에 그럴 법한 심리적 현실이 된다.

물론 모-자녀 관계의 그러한 심리적 역동은 정치적인 목적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생일잔치에서 정옥이 귀녀를 ‘엄마’라고 부를 때 이는 귀국자인 정옥이 어머니 당을 받아들이고 그 품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이다. 즉,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머니 당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바, 바꾸어 말하면, 인민들은 어머니 당의 아이가 되어야 한다.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정옥이 ‘엄마’를 부르짖으며 기어가는 장면은 말 그대로 ‘아이’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는 정신역동적 차원에서는 유아기로의 퇴행(regression)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때의 퇴행은 인민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완치된 정옥이 귀녀를 업고 가는 모습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정옥이 ‘어머니’인 귀녀, 궁극적으로는 어머니 당과 아버지 수령께 효도로 은혜를 갚는다는(갚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VI. 결론

이 연구를 이끌었던 문제의식은 북한의 가족주의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유교 이데올로기가 북한 국가의 구성, 권력의 세습, 가부장적 사회

통제 등에서 커다란 요인이 되어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하게 질문한다면, 국가 기구의 일부이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당은 왜 ‘어머니’인가? 남성인 최고지도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로 칭해지고 있는 점 자체, 그리고 국가의 수반이 이미 양친을 모두 합친 상태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시 어머니로 비유되고 있는 점은 북한 체제 연구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부문의 정성운동 사례를 통해 북한 가족주의 체제의 모성적 성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로동신문 보도, 그리고 영화를 연결시켜서 정성운동에서 말하는 육친적 사랑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첫째, 김일성의 저작 그리고 그것을 잇고 있는 김정일의 저작 모두에서 토착심리학적 범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드러난다. 김일성은 보건의료부문을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삼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국가가 인민을 보살핀다는 메시지의 중요성, 나아가서 부모-자녀의 애착관계에 대한 토착심리적 역동의 정치적 중요성을 직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육친적 사랑, 지극한 정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성운동이 보건의료부문에서 제도화된 것 자체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토착심리적 지평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성운동에 대한 로동신문 기사들은 육친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 보도사례들은 육친적 사랑이 부자관계가 중심이 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준다. 육친적 사랑의 예시들은 유교적 가치인 충효보다는 오히려 근원적으로 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애착의 감정에 강하게 호소한다. 육친적 사랑이 남성의료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요구하는 사랑과 정성은 의료인의 성별을 불문하고 모성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셋째, 영화 『사랑의 대지』는 육친적 사랑에서 모-자녀 관계의 애착이 압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 영화는 여의사가 지극한 정성으로 여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의료적 급부만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각자가 고아로서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갈구의 감정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 어머니는 어머니 당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승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신역동이 불러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을 북한의 선동예술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개인의 정신역동이 모-자녀 관계의 토착심리적 지평에서 구성되는 양상 및 그렇게 구성되는 정신역동이 정치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20)</sup>

북한의 선전선동가들은 “화목한 대가정”이 주민들에게 ‘감정의 구조’로 확립되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 도덕과 이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른바 “사람과의 사업”(김일성 1971: 16)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심

<sup>20)</sup> 필자는 이 글에서 북한 연구에서 토착심리(문화심리)가 중요함을 말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교 중심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같은 문제 제기가 북한 국가의 기독교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를 말한 것에 대해 와다 하루키는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표현되는 정식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와다 2002: 148). 필자의 관점에서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삼위일체는 부모-자녀가 화목한 대가정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보다는 한국 가족의 토착심리에 더 근본적으로 토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Jung 2013b). 상당수의 학자들이 지목한 대로 김일성 가계의 기독교적 배경과 해방 전후 북한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상당했던 점이 북한 체제의 성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예: 김병로 2000; 암스트롱 2005; 정대일 2012). 그러나 기독교 역시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토착심리적 지형 속에서 수용되고 토착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체제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성격과 무게는 보다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리적인 경향성의 토대 위에서 개인의 내면심리적 역동을 건드려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북한의 감성의 정치에서 충효 사상보다는 모-자녀 관계의 애착이 더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고, 토착심리학을 그 매개로 지목하였다. 다시 말해서, 원초적 모-자녀 관계에서 파생하는 토착심리학적 범주인 사랑과 정성이 다시 정치적 모-자녀 관계를 위해 호명되는데, 토착심리학적 담론은 다른 어떤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하게 개인 심리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개인 심리가 토착심리적 충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체제와 개인 심리는 토착심리학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보건의료부문의 선전선동에서 토착심리학을 매개로 모-자녀 관계의 정신역동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의 모성적 토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북한 연구에서 모성 비유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부성 비유가 북한 국가 지도부의 성격에 대해 말한다면, 모성 비유는 국가가 주민을 포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당은 “어미닭처럼” 인민을 품으며, 따라서 보건의료부문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어머니의 보살핌이 된다. 모성 비유는 북한 연구의 무게 중심을 국가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로 이동시키는 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14년 4월 28일 / 심사 : 2014년 4월 30일 / 게재확정: 2014년 5월 13일

## 【참고문헌】

## 국문단행본

- 김병로.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김주희.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집문당, 1992.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 박재형·김옥주·황상익. 『북한의 의학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승창호. “인민보건의사업 경험.” 편집부 편. 『북한 보건의료 연구』. 서울: 청년세대, 1989.
- 프레드 엘퍼드 저. 남경태 역.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 서울: 그린비, 2000.
- 연하청. 『북한의 인구·보건 정책』. 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0.
-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 이광규. 『한국 가족의 구조 분석』. 서울: 일지사, 1975.
- 이철형·이일학. 『북한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 서울: 계축문화사, 2006.
- 로저 자넬리·임돈희 공저. 김성철 역.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서울: 일조각, 2000.
- 빅터 조지·닉 매닝 공저, 고영복 편역. 『사회주의와 사회정책』. 서울: 정음문화사, 1989.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0.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2판. 서울: 개문사, 1977[1965].
- \_\_\_\_\_. 『한국가족연구』 개정판. 서울: 일지사, 1982[1966].
-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 외 역. 『한국현대사』. 서울: 창비, 2003.
- 황상익.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 보건의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황홍국·박웅섭·김상아·김보경. 『중국의 보건의료관리』. 서울: 보문각, 2011.

### 외국어단행본

- Chodorow, Nanc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1978].
- Kwon, Heonik and Byung-Ho Chung.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Lanham, MD: Roman and Littlefield, 2012.
- Lutz, Catherine. *Unnatural Emotions: Everyday Sentiments on a Micronesian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Williams, Raymond.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국문논문

- 강준웅.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6호 (2001), pp. 323-346.
- \_\_\_\_\_. “남북한의 국가와 가족: 체제 변화와 가족주의의 변형.”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 (2010), pp. 139-175.
- 김원태.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6호(2010), pp. 247-270.
- 찰스 암스트롱 저, 김지혜 역. “가족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 종교.” 임지현·김용우 편, 『대중독재 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서울: 책세상, 2005, pp. 168-189.
- 이문웅. 1989. “북한의 가족과 친족제도: 연속과 변용.” 『평화연구』, 제14권 (1989), pp. 69-82.
- \_\_\_\_\_.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전통유교문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 135-162.
- 이혜경.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항직.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개념 설정 및 개념사 연구.” 『사회이론』, 22 (2002), pp. 331-360.
- 정대일. “국가종교로서의 북한 주체사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6집 3호 (2013), pp. 165-209.
- \_\_\_\_\_. “담임학급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족비유와 가족주의: 지속과 변화.” 『비교문



화연구』, 제20집 1호 (2014), pp. 157-189.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서양사론』, 제100권 (2009), pp. 217-253.

조혜정.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제17집 (1985), pp. 81-98.

최영인 · 김수연 · 황상익. “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제15권 1호 (2006), pp. 23-48.

### 외국어논문

Cummings, Bruce.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 (1982-83), pp. 269-294.

Jung, Hyang Jin. “Do They Mean What They Act? Surveillance, Theatricality, and Mind-Heart among North Koreans.” *Acta Koreana*, vol. 16, no. 1 (2013a), pp. 87-111.

\_\_\_\_\_. “Jucheism as an Apotheosis of the Family: The Case of the Arirang Festiva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4, no. 2 (2013b), pp. 93-122.

Kwon, Heonik. “North Korea’s Politics of Longing.” *Critical Asian Studies*, vol. 42 (2010), pp. 3-24.

Lee, Mun Woong.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Rice University Studies*, vol.62, no.1 (1976), Whole issue.

### 기타

박상민 · 강석훈 · 윤수진 · 박영수 · 이기현 · 표세라. “남한에 정착한 북한의사의 의료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인력 통합 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결과보고서, 2011.

### 자료

김일성의 문건(발표 연도순)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1947.5.21).”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82-290.

“보건일꾼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1961.6.7).” 『김일성전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p. 246-254.

-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1966.10.20).” 『김일성전집 3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p. 385~390.
-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1967.6.6).” 『김일성전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p. 1~5.
-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1968.3.26).” 『김일성전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p. 166~180.
- “전국보건일군대회에서 한 연설(1971.6.1).” 『김일성전집 4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pp. 1~18.
-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 데 대하여(1976.9.23).” 『김일성전집 6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 54~56.
- “보건부장에게 준 지시(1979.1.14).” 『김일성전집 6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pp. 102~103.
- “동 의학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1979.2.27).” 『김일성전집 6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pp. 168~181.
- “평양산원은 여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다(1980.3.31).” 『김일성전집 7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pp. 160~16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1980.4.3).” 『김일성전집 7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pp. 183~191.
-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1980.4.4).” 『김일성전집 7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pp. 192~206.
- “과학, 교육사업과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88.3.7-3.11).” 『김일성전집 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pp. 71~112.

김정일의 문건(발표 연도순)

-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1974.4.9).” 『김정일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123~132.
-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76.5.1).”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99~305.
-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85.4.21).”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73~199.
-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1992.7.22).”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13~119.

『로동신문』(연월일순)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로동신문 데이터베이스(1971년~2012년).

“뜨거운 정성이 안아오는 소생의 기쁨: 안주시 덕성동진료소에서.” 2003년 12월 8일.

“정성은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생과 의사, 간호원들.” 2008년 3월 28일.

“사랑과 정성의 새전설 강산을 울린다: 전신 67%의 3도 화상을 입은 부전강발전소의 한 로동자의 소생에 깃든 이야기.” 2008년 11월 19일.

“정성의 꽃을 피워가는 성실한 의사: 함흥시 동흥산구역 동흥산종합진료소 조경순 동무.” 2008년 12월 15일.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으로: 사동구역 제3료양소에서.” 2009년 5월 12일.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대동강구역인민병원 과장 오명희 동무.” 2010년 11월 12일.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꽃피운 새전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료일군들.” 2010년 11월 29일.

“인간생명의 참된 보호자가 되도록 이끄시여.” 2011년 6월 7일.

영화

『사랑의 대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9.

기타

석광희. “약수터, 정성의 샘물아!” 『조선문학』, 5호 (1964), p. 81.

The Maternal Side of the North Korean Family State  
: The Case of the Medical Care Sector

Jung, Hyang 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hile the North Korean family state has been largely accounted for in terms of the patrilineal and patriarchal principles of Confucianism, this article argues for the maternal side of the North Korean family state, by examining familial metaphors employed in the propaganda efforts in the medical care sector. Maternal love and care is figured centrally in the familial metaphors in the three sites of propaganda efforts examined in this article: writing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model cases reported on Rodong Sinmun, and a propaganda film. A case in point is the popular campaign of the medical care sector, called devotion movement. The campaign illustrates that the primordial attachment and psychodynamics nurtured in the mother-child dyad is appropriated for the loyalty to the Party, by way of care narratives that profusely utilize certain cultural categories of affect closely related to mothering. This well resonates with the fact that the Party is called the Mother in North Korea, the medical care workers being Her warriors.

key words: North Korea, family state, maternal metaphors, mothering, North Korean medical care sector, chǒngsǒngundong (devotion movement)

**정향진(Jung, Hyang Jin)** .....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Jucheism as an Apotheosis of the Family: The Case of the Arirang Festival”, “Do They Mean What They Act? Surveillance, Theatricality, and Mind-Heart among North Koreans”가 있으며, 단행본으로 *Learning to Be an Individual: Emotion and Person in an American Junior High School* 이 있다.